

## 매일경제

### 한국 오일·가스쇼에 중동 22개 업체 온다

6월25일 코엑스서 개최

"석유가스 전문가들과 중동 에너지 기업들이 몰려온다."



국제유가 급등과 자원 개발이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에너지

분야를 다루는 국제컨퍼런스와 전시회가 동시에 예정돼 주목을 끈다. 매일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오는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08 아시아 석유가스 전시회`가 바로 그것.

일명 `아시아 오일&가스쇼 2008`로 불리는 이번 행사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 아부다비 국영 석유회사인 ADNOC, 카타르 페트롤리엄 등 중동에서만 22개 업체가 참가한다. 지금까지 참가를 신청한 46개 업체(국내 13개사 포함)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 행사일까지 10개 업체가 추가로 참가 등록을 할 예정이다.

중동 업체들은 특히 `중동 청정해역기구(RECSO)` 전시관을 구성해 이곳에 마련된 부스에서 각사 소개자료를 비치하고 수출·투자상담 등을 진행한다. RECSO는 중동 석유·선박회사들로 구성된 환경기구로 1972년

설립돼 걸프해역 환경보호에 나서고 있다. 또 정유사업에 쓰이는 파이프나 밸브 등 대형 장치물도 전시될 예정이다. 특히 모하메드 사이프 알 구사이어 아람코 부사장이 `정제마진 추이와 수익극대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한다. 콘퍼런스는 전시회와 별도로 `아시아 석유가스 시장의 기회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리며, `국제 석유가스 전망` `아시아 지역 석유가스 전망` 등 9개 세션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연사와 토론자로는 모하메드 알 하밀리 아랍에미리트(UAE) 에너지부 장관, 조너선 굿럭 나이지리아 부통령, 모하메드 바킨도 OPEC 전 사무총장, 카미스 부아민 RECSO 위원장 등 에너지 분야 거물들이 초청됐다.

[김병호 기자]